

시인의 마을



몸이 왜 이리 무거운가?
많이 먹지도 않는다
나만 이래야 하는겨, 밍상이네,
예쁘고 날씬하다 이겨여

근게 말여, 찌도 문제, 말라도 문제여
보가 좋고, 예쁘디, 왜 그래
미안한다, 둘째야, 화 내지마
난, 살이 통 붙질 않네

둘은 그래두 남자니까
근디, 나는 뭐야
이놈의 살, 어쩔다냐, 살은 전쟁여, 전쟁,
어렵없는 소리제

남녀가 왜 중요한겨, 이 시점에서
창피하지도 않니, 저기 저것들이 비웃잖여
수련, 저것들도 예쁘다 이겨지, 아이, 속상혀

일단, 오늘날
고추장 삼겹살에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찌끄러야 하지 않을가?

바위 삼남매

시詩를 담다 Ⅱ

대한민국은 살과의 전쟁이다. 열량을 따져 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주문시킨다.

이것은 몸에 좋다. 저것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구가 일상화되었다.

어느 제품에서나 강조하는 부분이 살아다. 다이어트 광풍이다. 다양한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

연못가의 삼 남매 중 위의 시를 바탕으로 구분해 보면, 맨 앞에 있는 것이 둘째 딸이다.

덩지도 크고 뒤의 두 바위에 비해 복스러워 보인다. 뒤 두 바위 중 하나는 첫째인 아들, 남은 하나가 셋째 아들이다. 이들 역시 대화의 포인트는 살이다.

특히, 시의 전개로 보아 딸로 추정되는 둘째는 심각하다. 그런데, 첫째 오빠는 마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 고민이다.

이처럼, 사람은 한 마디로 먹어서 죽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비하면 행복한 고민일지 모른다.

그만큼 먹거리가 풍부해졌다. 그 종류도 다양해 입맛에 따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먹어서 죽는다. 참 좋은 시절이다. 고추장 삼겹살에 막걸리 한 사발 시원하게 찌끄러야겠다.



박여범

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사설

도이치모터스 처리 주목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합수단은 재출범하자마자 루나·테라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잡았다.

루나와 테라로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는 28만 명, 시가 총액은 일주일새 450조 원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 지지를 이끌기 위한 전략을 깔고 있다고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아편과 수사권 조정 등에서 사사건건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여론 선점이 필수적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로 여론의 전폭적 인 지지를 얻으면서 위기 국면을 돌파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합수단의 재출범과 서민 착취형 경제 범죄 양단은 이제명 더 불어민주당 상임고문조차 환영 의사를 밝힐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어떻게 마

무리하는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 조작은 증권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편에 속한다. 더구나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살 권력'이 결부돼 있다. 따라서 처리 방향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 14명이 기소돼 재판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전주(錢主)'로 의심받는 김 여사는 처벌이 없다. 검찰은 시세 조종에 이용된 6개 계좌를 가진 김 여사를 단순 투자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김 여사를 서면 조사 후 불기소 처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애초 별도 조사 없이 처벌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수사팀은 어떤 형태로든 조사는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아편을 중심으로 검찰이 도이치 사건 의혹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 기업 유치 과제

전북 기업 유치 과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과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의 지방 분산이 절실하다.

그러나 기능의 지방분산 문제는 녹록치 않다.

전북의 경우 인근 충청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일단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인 것이다. 결국 유치 기업은 여전히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전북의 기업 유치가 불리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됐다. 우선 기업이 전북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등에 첨단 산업을 집적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나 기업 등은 이전을 할 경우 먼저 정보의 획득이 쉬운 지역을 선호한다.

관련 시설이 집적된 지역, 쾌적하면서도 발달된 각종 시설 등이면 더욱 좋다.

충청권은 전북에 비해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충청북도의 혁신 도시(진천,음성)는 서울로부터 약 100km의 거리에 있다.

세종시 및 충주 기업 도시와 약 5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 과학산업 단지과 약 25km 내에 인접하여 중부권 발전의 축을 이루고 있다.

갈수록 수도권 도시 정비 등으로 이전을 고려중인 기업들이 많다. 전북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북에 내려오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냉철하게 다른 지역과 입체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지가 부담 감소, 임금 절감,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강점을 홍보하기보다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업 유치를 도내 다른 시·군까지 공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유류세 면제 요청하는 바이든 美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기름값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행 철인 향후 90일 동안 연방 유류세를 면제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의 텐트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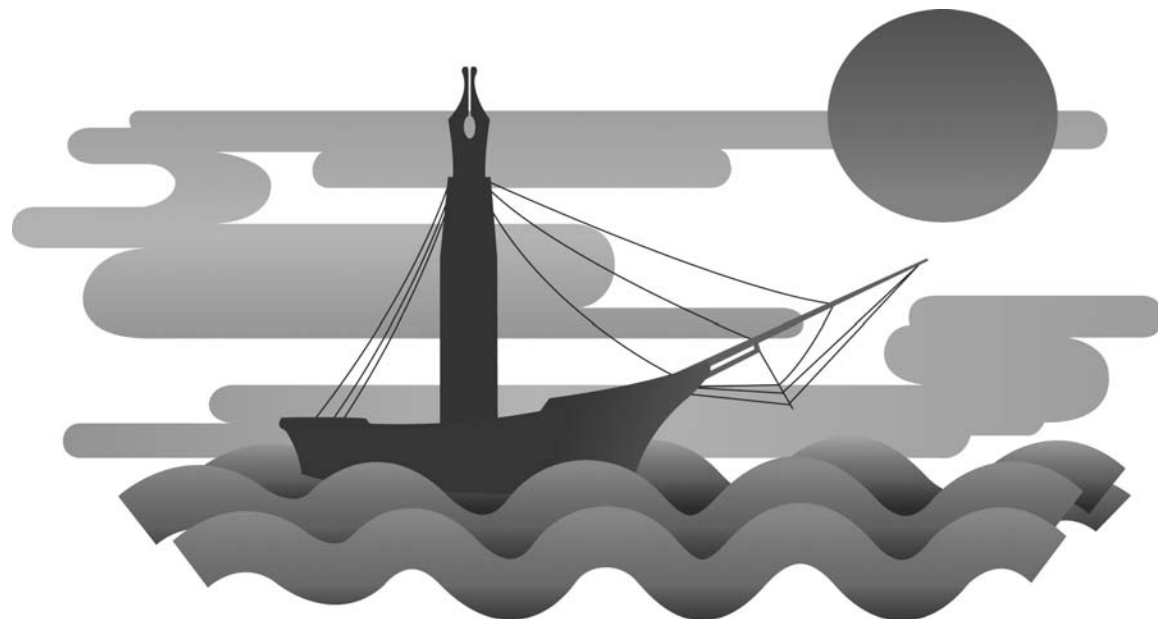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22일(현지시간) 영국 서머셋주 워디 팜에서 열린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행사장에 텐트촌이 형성돼 있다. 코로나19로 지난 2019년 중단됐던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이 3년 만에 재개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